

사회비교 경향성과 물질주의 간의 관계: 신경증과 자기성찰의 다중매개효과

선진¹⁾ 정주리^{*}

본 연구는 Donnelly 등(2016)의 도피이론을 바탕으로 한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사회비교 경향성과 물질주의 간의 관계에서 신경증과 자기성찰의 다중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에 거주하는 성인 445명(남성 218명, 여성 22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얻고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회비교 경향성은 물질주의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비교 경향성과 물질주의 간의 관계에서 신경증과 자기성찰의 개별매개 효과와 연속매개효과가 나타나 두 변인의 다중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국내 성인들이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부정적 감정을 느낄 가능성이 크고, 부정적 감정에서 도피하기 위해 자신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보다는 물질적인 가치에 몰두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기에 과도한 물질주의 가치 추구의 폐해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물질주의에 영향을 주는 사회비교 경향성, 신경증, 자기성찰의 기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사회비교 경향성, 물질주의, 신경증, 자기성찰

1)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박사 수료

* 교신저자 : 정주리,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E-mail: jjoeng@jnu.ac.kr

 Copyright ©2025,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한국인들이 소비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음은 실제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공개된 모건스탠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인 명품 소비액은 168억 달러(약 21조)로 한국인 1인당 325달러를 명품에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은 미국인 1인당 명품 소비액(280달러)과 중국인 1인당 명품 소비액(55달러)과 비교할 때 한국인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명품에 소비함을 확인시켜준다(시사뉴스매거진, 2023). GDP 기준 2022년 한국 경제 순위는 13위이지만(KBS world, 2023) 한국인의 명품 소비는 전 세계 2위라는 현상(시사뉴스매거진, 2023) 역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품을 소비하는 물질주의가 한국 사회에 만연해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물질주의란 돈이나 물질을 획득하는 것을 삶의 중심에 놓고 소유물을 획득함으로써 행복을 추구하며 소유물로 성공을 판단하는 경향을 말한다(Richins, 2004; Richins & Dawson, 1990). 한국은 1980년대 이후 급속히 경제가 성장하여 2023년 기준 명목 GDP 70배 이상의 급진적인 성장을 이룩하였으나(국가통계포털, 2023) 동시에 물질을 삶의 중심에 두는 물질주의 가치관 역시 경제의 급진적인 성장과 함께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Diener 등(2010)에 따르면 한국인들(7.24점)은 미국인(5.45점), 일본인(6.01점)뿐만이 아니라 한국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짐바브웨인(5.77점)보다 높은 물질주의 추구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2022년 한국인 물질주의 가치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경제생활 영역에서 물질주의 가치를 중요시할 뿐만 아니라, 과거보다도 물질주의 가치관이 크게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22). 이렇듯 한국인들은 여러 해에 걸쳐 물질주의 가치를 높이 추구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하지만 한국인의 전반적인 경제적 수준에 비례하여 한국인의 행복 수준이 같이 증가하지는 않았다. UN의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의 2022년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주관적 행복도 점수는 5.95점(10점 만점)으로 세계 57위로 나타났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8개국 중에서도 주관적 행복도는 35위이면서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로 나타났다(Helliwell et al., 2022). 소득과 행복 간의 관계를 분석한 Diener 등(2010)은 일정 수준의 소득수준을 넘어가면 한계효용 법칙에 의해 추가로 증가하는 행복 수준은 매우 적고, 한국인의 평균적인 경제적 수준은 이미 한계효용 법칙에 도달한 수준이라고 분석하였다. 평균소득이 올라감에 따라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길 원하지만 역설적으로 소유의 욕망은 끝이 없고 완전히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욕구 충족 좌절로 인해 사람들의 행복 수준은 오히려 낮아지게 된다(Graham et al., 2010). 한계효용의 법칙은 지금도 적용되는 것이기에 Diener 등(2010)의 연구 때보다 명목 GDO 기준 한국인의 평균소득은 지금 더 늘어났지만, 증가하는 행복의 수준은 여전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Diener 등(2010)은 한국인의 낮은 행복도가 높은 물질주의 추구 성향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물질주의는 낮은 행복감과 연결되어 있다(Diener & Oishi, 2000). 물질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물질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행복에 기여하는 다른 중요한 가치(가족, 우정, 직업 만족

도 등)들이 희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행복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Diener et al., 2010).

특히 집단주의 문화에 속하는 한국인들은 외형적 가치나 물질주의적 가치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승인을 추구하는 경향성으로 인해 사회비교를 많이 함으로써 행복 수준이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Scollon & Wirtz, 2014; Suh, 2007; Wirtz & Scollon, 2012). 즉, 한국인은 계속해서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물질, 더 좋은 물질을 소유하길 원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욕망으로 인해 행복 수준이 내려갈 수 있다(구재선, 서은국, 2015).

여러 선행연구에서 물질주의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다양하게 보고되었다. 예를 들어 물질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자존감이 낮고(Donnelly et al., 2016; Reeves et al., 2012), 자기비판적이며(Donnelly et al., 2016; Wachtel & Blatt, 1990) 자기의심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ang & Arkin, 2002; Donnelly et al., 2016). 그리고 물질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외형적 가치를 중시하여 자신의 외모가 매력적이지 않거나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여성의 경우에는 마른 체형이 이상적이라고 믿으며 만성적인 다이어트를 하고, 남성의 경우에는 근육질 몸매가 이상적이라고 믿어서 근육을 늘리려고 하는 경향을 보였다(Donnelly et al., 2016; Gudnadottir & Gardarsdottir, 2014). 또한, 물질주의 경향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값비싼 물건을 구매하거나 높은 지위를 상징하는 물건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Donnelly et al., 2016; Eastman et al., 1997; Heaney et al., 2005; Velov et al., 2014). 그뿐만 아니라 물질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실제와 이상 간의 차이를 크게 느끼며(Dittmar, 2005; Dittmar et al., 2007; Donnelly et al., 2016), 물질주의 추구 성향이 낮은 사람들보다 물건을 구매하고 난 후 해당 구매에 대해 더 큰 실망감을 느끼고(Donnelly et al., 2016; Richins et al., 1992), 분노, 짜증, 두려움, 신경질, 질투, 죄책감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onnelly et al., 2016; Richins et al., 1992).

이렇게 물질주의 가치를 과도하게 추구하는 것의 부정적 영향은 널리 알려져 왔지만, 물질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물질주의 경향성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물질주의 성향을 나타내는 사람들의 특성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에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회비교 경향성과 물질주의

Donnelly 등(2016)은 물질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주요 행동 패턴을 도피이론(Escape Theory)으로 설명하였다. 도피이론은 크게 6단계로 구분되는데 먼저, 1단계에서는 개인이 삶에서 원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실망하게 된다. 2단계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비난하며, 3단계는 자기혐오가 높아지는 단계이다. 4단계는 정서적 고통, 불쾌감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며, 5단계는 혐오스러운 자기 인식과 부정적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지적 왜해 징후로서 편협하고 경직되며 근시안적인 현재 중심적 사고를 하게 된다. 마지막 6단계에서는 비합리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으로 부적응적인 소비와 물질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Donnelly 등(2016)의 도피이론을 요약하면, 자신에 대한 불만족은 부정적 감정으로 이어지며, 이는 깊이 있는 인지적 성찰이 아닌, 편협하고 근시안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즉각적인 만족감을 얻기 위한 소비와 물질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데 자신에 대한 불만족은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여겨지거나 자신보다 더 우월하다고 여겨지는 타인과의 지속적인 비교를 통해 더욱 증가할 수 있다. 즉, 사회비교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도피이론에서 이야기하는 물질주의 가치 추구단계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사회비교란 자신을 평가할 명확한 기준이 불확실한 때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이해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Festinger, 1954). 사회비교는 비교하는 대상에 따라서 유사한 상황을 가진 대상과 비교하는 유사비교, 열등한 대상과 비교하는 하향비교, 자신보다 우월한 대상과 비교하는 상향비교로 구분된다. 이때 비교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다른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유사비교 시에는 자존감과 정서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상향비교 시에는 자기개념 명확성과 자존감이 낮아지는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하향비교를 할 경우에는 자존감이 향상되는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예진 등, 2024; 이용건, 하창현, 2023; Buunk et al., 2007; Callan et al., 2015; Krizan & Bushman, 2011).

그러나 누구와 비교하는지와는 별개로 타인과 자신을 자주 비교하는 성향 자체가 물질주의 가치 추구하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인이 타인과 자신을 자주 비교하는 성향을 사회비교 경향성이라 하는데(Gibbons & Buunk, 1999) 여러 선행연구에서 물질주의는 사회비교 경향성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이용건, 하창현, 2023; Chatterjee et al., 2019; Kim et al., 2017). 구재선과 서은국(2015)의 연구에서 사회비교는 물질주의 같은 외적 가치 추구하고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김경미(2019)의 연구에서는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물질주의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주의와 같은 외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사회비교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지만(최병섭, 이지연, 2019; Rahtz et al., 1988; Richins et al., 1992), 사회비교로 경험되는 불확실성이나 불안정감으로 인해 물질주의 추구 성향이 증가할 수 있다는 관점도 있다(이용건, 하창현, 2023; Kasser et al., 2004). Zheng 등(2018)은 실험연구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이 사회비교로 인한 부정적 정서 경험을 극복하기 위해 물질을 추구하는 모습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참여자인 대학생들이 학업성취 결과에 대해 자기보다 더 좋은 성취를 나타낸 다른 학생들의 결과와 상향비교를 했을 때 물질 소비를 통해 질투라는 감정을 다루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Zheng 등(2018)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물질주의는 사회비교 경향성으로부터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경미(2019)의 연구에서도 사회비교 경향성이 물질주의를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피이론 1단계에서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 우월한지, 열등한지를 평가한다(Donnelly et al., 2016). 그리고 2~4단계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사회비교를 많이 하면 할수록 수치심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많이 경험하게 된다(구재선, 서은국, 2015).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사회비교를 많이 할수록 낮은 행복감, 낮은 자존감, 높은 우울, 그리고 신경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미, 2019; 윤인영, 유나현, 2023; 진성조, 이진실, 2023; Gibbons & Buunk, 1999). 즉, 사회비교로 경험하는 낮은 자존감은 부정적 감정으로 이어지고,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보다는 경직되고 근시안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Donnelly et al., 2016; Smith & Greenberg, 1981).

사회비교를 통해 부정적 감정을 자주, 강하게 경험하게 된다면 해당 감정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할 가능성이 커진다(Donnelly et al., 2016). 강한 부정적 감정을 자주 경험하는 것은 신경증 성향의 중요한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신경증은 다양한 상황의 결과들에 대해 좌절하고 비판적으로 느끼는 경향을 말한다(Costa & McCrae, 1992). 선행연구자들은 정서와 자존감의 불안정성, 특히 부적 정서의 불안정성이 신경증 성향의 핵심적인 특성이라고 하였다(이슬, 장승민, 2017). 반복적인 사회비교는 이러한 부적 정서를 강하게 자주 경험하도록 하고, 이는 신경증의 핵심적인 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신경증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가진 자원 수준을 낮게 평가하고(Suls & Martin, 2005) 자신의 물질적 삶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órnik-Durose & Pilch, 2016). 따라서 신경증이 높을수록 Donnelly 등

(2016)의 도피이론 초기단계에서 제시한 것처럼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에게 실망하고 부정적 감정을 느낄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선행연구에 따르면 신경증은 물질주의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Ashton & Lee, 2009; Górnik-Durose & Boroń, 2018; Otero-López & Villardefrancos, 2013; Shafer, 2000; Sharpe & Ramanaiah, 1999; Watson, 2014, 2015, 2021). 물론 이러한 연구에서는 두 변인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 방향성을 나타낸 것은 아니지만, 도피이론의 1~4단계를 정리하면 사회비교를 자주 할수록 부정적 감정을 강하게 자주 경험할 수 있고, 신경증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하는 부정적 감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물질적 가치를 추구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Donnelly 등(2016)의 도피이론 5~6단계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사회비교가 신경증을 거쳐 물질주의 가치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인지/사고 역시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도피이론에서는 자신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자주 경험하게 되면 자기 인식이 불쾌해지고 이를 벗어나고자 동기부여가 되고(Carver & Scheier, 1981, 1982) 그 과정에서 깊이 있는 인지적 사고가 아닌, 인지적 외해가 일어난다고 보았다(Donnelly et al., 2016). 다시 말해, 강한 부정적 감정을 자주 경험하는 사람은 자기 내면에 주의를 기울여 자기 생각, 감정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숙고하여 성숙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김수경, 2022). 과도한 사회비교는 강한 부정적 정서 및 낮은 행복감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구재선, 서은국, 2015; Scollon & Wirtz, 2014; Suh, 2007; Wirtz & Scollon, 2012) 자기 평가에 위협으로 작용하기 때문에(Tesser et al., 1988) 자신의 내면에 주의

를 기울이고 자기를 성찰하는 데 저해가 될 수 있다.

자기성찰은 생각, 감정과 같은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관찰하며 변화하는 과정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수경, 2022). 이러한 성찰적 사고는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문제 상황에서도 더 나은 문제 해결 방법을 찾도록 해준다(Savchenko, 2019; Tranpnel & Campbell, 1999). 그뿐만 아니라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은 현실을 파악하고 자신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Kostyuchenko, 2020). 한 실험연구에서는 신경증적 경향이 높은 연구참여자들이 성찰을 포함한 개입이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데 효과가 있음을 심리적 측정뿐만 아니라 생리적 변화 측정, 뇌전도(EEG) 분석을 통해 밝혀냈다(Izhar et al., 2022). 따라서 성찰적 사고는 자신이 경험하는 부정 정서에서 도피하기 위해 물질 추구하고 같은 즉각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에 빠지게 하기 보다는 자신과 상황에 대해 더 깊이 숙고하여 더 나은 행동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실제 선행연구에서 넓은 관점에서 복합적인 사고를 하는 것은 물질주의 가치 추구하고 부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Elphinstone & Critchley, 2016), 자신의 내면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인지적 스타일을 가진 사람은 물질주의 가치를 더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atterjee, 1997).

요약하면, 다른 사람과 지속적으로 비교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삶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면 할수록, 불쾌한 자기 인식을 야기하여 부정적 감정을 자주 경험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며, 강한 부정적 감정을 자주 경험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깊이 있게 들여다

보는 자기성찰을 저해하고 외부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인지적 양식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러한 강한 부정적 감정과 낮은 자기성찰의 결과로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물질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onnelly 등(2016)의 도피이론을 기반으로 사회비교 경향성과 물질주의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고, 두 변인의 관계에서 신경증과 자기성찰의 다중매개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1. 사회비교 경향성과 물질주의 가치 추구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신경증과 자기성찰은 사회비교 경향성과 물질주의 가치 추구 간의 관계를 다중매개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C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얻은 후 온라인 설문조사 업체에 의뢰하여 전국 남녀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445명 중 남성이 218명(49.0%), 여성은 227명(51.0%)였고, 세대별로는 20대가 112명(25.2%), 30대가 111명(24.9%), 40대가 108명(24.3%), 50대 이상이 114명(25.6%)이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39.89세($SD=12.14$)였고 20~64세까지 참여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130명(29.2%), 경기/인천 149명(33.5%), 강원도 11명(2.5%), 충청/대전/세종 39명(8.7%), 경상/대구/부산/울산 87명(19.6%), 전라/광주/제주 29명(6.4%)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사회비교 경향성

사회비교 경향성은 Gibbons와 Buunk(1999)의 사회비교 경향성 척도(Iowa-Netherlands Comparison Orientation Measure: INCOM)를 김혜준(2017)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INCOM은 타인과 성과(performance) 또는 능력(ability)을 비교하는 6개 문항과 의견(opinion)을 비교하는 5개 문항,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점 리커트식 척도로 평정한다. 물질주의는 타인의 의견보다는 결과물로서 성과나 능력의 비교와 관련이 있을 것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성과/능력 측면에서 사회비교 경향성을 살펴본 선행연구(양혜승, 2015; 정주리, 2021)를 참고하여 이에 해당하는 6문항만 사용하였다. 해당 문항들의 점수가 높을수록 타인의 성과/능력과 자신의 성과/능력을 비교하는 경향이 높음을 나타낸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는 .87(정주리, 2021)이었고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는 .85였다.

신경증

신경증은 John과 Srivastava(1999)가 44문항으로 개발한 Big Five Inventory(BFI)를 김지현 등(2011)이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당화를 통해 축약한 간편형 한국어 BFI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간편형 한국어 BFI는 각 성격 요인마다 3문항으로 5점 리커트식 척도로 측정하며,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신경증을 측정하는 3문항을 사용하였다. 해당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신경증적 성향이 뚜렷함을 나타낸다. 김지현 등(2011)에서 나타난 신경증 신뢰도 계수는 .75였고,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는 .82였다.

자아성찰

자아성찰은 황주연(2011)이 개발한 자기성찰 척도 20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황주연(2011)이 개발한 자기성찰 척도는 자기탐색, 자기이해, 타인탐색, 타인이해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식 척도로 평정하며 각 요인별로 5문항씩,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성찰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황주연(2011)의 연구에서 나타난 전체 신뢰도는 .91이고,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자기탐색 .87, 자기이해 .82, 타인탐색 .80, 타인이해 .7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는 전체 .91, 자기탐색 .81, 자기이해 .80, 타인탐색 .79, 타인이해 .78이었다.

물질주의

물질주의 척도는 Richins와 Dawson(1992)이 18문항으로 개발한 Material Values Scale를 유지혜와 설경옥(2018)이 한국판으로 타당화하면서 15문항으로 줄인 한국판 물질주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물질주의 척도는 5점 리커트식 척도로 평정하며 성공판단(5문항), 소유중심(6문항), 행복추구(4문항)라는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물질주의 경향이 강함을 나타낸다. 유지혜와 설경옥(2018)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보고되지 않았고 요인별 신뢰도는 성공판단 .74, 소유중심 .71, 행복추구 .69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는 전체 .86, 성공판단 .78, 소유중심 .74, 행복추구 .63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29.0과 AMOS 24.0를 이용하

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단일요인을 가진 사회 비교 경향성은 요인부하량을 고려하여 문항묶음 방식을 사용하여 3개의 측정변인을 구성하였고, 신경증은 3개의 문항을 각각의 측정변인으로 하였으며, 자아성찰과 물질주의는 각각도의 하위요인을 측정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의 적합도 평가는 TLI, CFI, RMSEA, SRMR 지수를 활용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계수

사회비교 경향성, 신경증, 자기성찰, 물질주의의 변인의 기술통계량과 상관계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모든 연구변인의 왜도 절대값은 3 미만, 첨도 절대값은 8미만으로 자료가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West et al., 1995). 연구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사회비교 경향성은 신경증($r=.38$), 자기성찰($r=.15$), 물질주의($r=.36$)와는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신경증은 물질주의($r=.35$)와는 정적

상관을, 자기성찰($r=-.08$)과는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자기성찰과 물질주의($r=-.16$)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측정모형 검증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잘 나타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모형을 먼저 검증한 결과, 모형 적합도는 $\chi^2(59)=204.283$, $p=.000$, TLI=.926, CFI=.944, RMSEA=.074(.063~.086), SRMR=.069로 나타나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었다.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의 경로계수는 표 2에 제시한 것처럼 .594~.883($p<.001$)으로 나타났다.

구조모형 검증

연구모형을 검증했을 때, 구조모형 적합도는 $\chi^2(60)=222.434$, $p=.000$, TLI=.926, CFI=.944, RMSEA=.074(.063~.086), SRMR=.069로 역시 양호하게 나타났다.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는 표 3과 그림 1에 제시한 것처럼, 사회비교 경향성에서 물질주의로 이르는 모든 경로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비교 경향성은 물질주의에 유의한 정적 영향($b=.320$, $\beta=.415$, $t=6.621$, $p<.01$)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신경증($b=.487$, $\beta=.419$, $t=7.730$, $p<.01$)과 자기성찰($b=.187$, $\beta=.327$, $t=5.240$, $p<.01$)에도 각각 정적 영향을 미쳤다. 신경증은 자기성찰에는 부적 영향($b=-.128$, $\beta=-.260$, $t=-4.224$, $p<.01$)을 미쳤으며, 물질주의에는 정적 영향($b=.144$, $\beta=.217$, $t=3.655$, $p<.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성찰은 물질주의에 부적 영향($b=-.297$, $\beta=-.221$, $t=-4.006$, $p<.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 변인 기술통계량 및 상관계수

	1	2	3	4
1. 사회비교 경향성				
2. 신경증	.38**			
3. 자기성찰	.15**	-.08		
4. 물질주의	.36**	.35**	-.16**	
평균	3.68	3.01	3.50	3.03
표준편차	.85	.91	.49	.57
왜도	-.36	.00	-.34	.00
첨도	.06	.06	1.23	.23

표 2. 측정변인의 경로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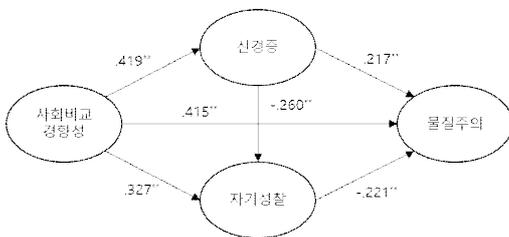
잠재변인	측정변인	b	β	S.E.	C.R.
사회비교 경향성	사회비교 경향성1	1.000	.831		
	사회비교 경향성2	.939	.791	.052	17.897**
	사회비교 경향성3	1.023	.849	.054	19.034**
신경증	신경증1	1.000	.883		
	신경증2	1.019	.854	.058	17.698**
	신경증3	.642	.594	.050	12.750**
자기성찰	자기탐색	1.000	.804		
	자기이해	1.040	.765	.065	16.001**
	타인탐색	1.068	.797	.064	16.587**
가족환경 스트레스	타인이해	.839	.648	.063	13.381**
	성공관단	1.000	.842		
	소유중심	.713	.686	.054	13.311**
	행복추구	.755	.726	.054	13.884**

주. ** $p < .001$.

표 3.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b	β	S.E.	C.R.
사회비교 경향성 → 물질주의	.320	.415	.048	6.621**
사회비교 경향성 → 신경증	.487	.419	.063	7.730**
사회비교 경향성 → 자기성찰	.187	.327	.036	5.240**
신경증 → 자기성찰	-.128	-.260	.030	-4.224**
신경증 → 물질주의	.144	.217	.039	3.655**
자기성찰 → 물질주의	-.297	-.221	.074	-4.006**

주. ** $p < .001$.



주. ** $p < .001$.

그림 1. 구조모형

매개효과 검증

사회비교 경향성과 물질주의의 관계에서 신경증과 자기성찰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팬텀변수를 생성하여 부트스트래핑 검증을 실시하였다. 95% 신뢰구간에서 1000번의 부트스트랩 표집으로 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 4. 매개효과 검증

경로	<i>b</i>	<i>SE</i>	95% CI	
			lower	upper
사회비교 경향성 → 신경증 → 물질주의	.070	.025	.028	.123
사회비교 경향성 → 자기성찰 → 물질주의	-.056	.021	-.107	-.021
사회비교 경향성 → 신경증 → 자기성찰 → 물질주의	.019	.008	.006	.041

표 4와 같다. 사회비교 경향성과 물질주의 관계에서 신경증과 자기성찰의 개별매개와 다중매개효과 모두 상한값과 하한값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두 변인의 매개효과는 유의하다고 볼 수 있었다.

논 의

본 연구는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Donnelly 등(2016)의 도피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비교 경향성과 물질주의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신경증과 자기성찰이 사회비교 경향성과 물질주의 간의 관계를 다중매개하는지를 살펴 보았다.

먼저, 사회비교 경향성과 물질주의 간의 관계는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비교 경향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물질주의 성향을 나타낼 가능성 역시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 다른 사람과 자신을 자주 비교하는 경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돈이나 물질 획득을 삶의 중심에 놓고 소유를 통해 행복을 추구하며 소유물로 성공을 판단하는 경향(Richins & Dawson, 1990, 1992; Richins, 2004)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선행 연구에서 집단주의 문화에 속하는 한국인들은 사회적 승인을 추구하기에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비교하여 사회비교를 많이 하는 경향

이 있음을 밝혔다(Scollon & Wirtz, 2014; Suh, 2007; Wirtz & Scollon, 2012). 이처럼 많은 한국인이 끊임없이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좋은 물질을 더 많이 소유하려는 욕망을 가지지만 이러한 욕망은 쉽사리 채우기 어렵기에 결과적으로 낮은 행복감을 야기한다는 것이다(구재선, 서은국, 2015). 여러 연구에서 사회비교 경향성과 물질주의 간의 관계가 확인되었는데(김경미, 2019; 이용건, 하창현, 2023; Chatterjee et al., 2019; Kim et al., 2017) 본 연구에서도 한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물질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주요 행동 패턴을 설명한 도피이론(Donnelly et al., 2016)을 바탕으로 사회비교 경향성과 물질주의 간의 관계를 신경증과 자기성찰이 다중매개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먼저 신경증과 자기성찰은 사회비교 경향성과 물질주의 간의 관계를 개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비교 경향성은 신경증과 정적 영향을 미치고, 신경증은 물질주의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Donnelly 등(2016)의 도피이론에 따르면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 우월한지, 열등한지 등을 평가하는데 이렇게 사회비교를 많이 하면 할수록 수치심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자주 많이 경험하게 된다(구재선, 서은국, 2015). 그리고 강한 부정적 정서를 많

이 경험할수록 해당 감정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할 가능성이 커진다(Donnelly et al., 2016).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부정적 감정에 대한 도피의 수단으로 물질에 몰두하고, 집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선행연구에서도 사회비교는 부정적 감정, 신경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미, 2019; 윤인영, 유나현 2023; 진성조, 이진실, 2023; Gibbons & Buunk, 1999). 더불어 신경증은 물질주의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Ashton & Lee, 2009; Górnik-Durose & Boroń, 2018; Otero-López & Villardefrancos, 2013; Shafer, 2000; Sharpe & Ramanaiyah, 1999; Watson, 2014, 2015, 2021). 물론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변인 간의 상관성만을 제시하지만, 한 실험연구에서는 사회비교로 인한 부정적 정서 경험을 극복하기 위해 물질주의를 더욱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남을 확인함으로써 변인 간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Zheng et al., 2018). 이는 다시 말해 Donnelly 등(2016)의 도피이론에서 제시한 것처럼, 개인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삶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신을 비난하고 자기혐오로 인해 부정적 감정을 자주 경험하게 되고, 이는 다양한 상황의 결과들에 대해 좌절하고 비관적으로 느끼는 경향(Costa & McCrae, 1992)인 신경증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경증적 성격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부정적 감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물질 획득을 더욱 중요시하고 이에 몰두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회비교 경향성과 물질주의 간의 관계에서 자기성찰의 개별 매개효과 역시 나타났다. 자기성찰은 생각, 감정을 포함하여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관찰하고 변화하는 과정을 인식하는 것으로(김수경, 2022)

도피이론(Donnelly et al., 2016)에서는 사회비교 결과로 나타난 낮은 자존감이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보다는 경직되고 근시안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즉, 도피이론에서는 사회적 비교를 통한 자신에 대한 불만족은 깊이 있는 인지적 성찰이 아닌 편협하고 근시안적인 사고를 유발하고, 이러한 편협하고 근시안적 사고는 즉각적인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물질추구 경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회비교 경향성이 자기성찰에 부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이 연구에서는 오히려 사회비교 경향성이 자기성찰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자기성찰은 이론에 부합하게 물질주의에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피이론에서 제시한 것과 다르게 본 연구에서 사회비교 경향성과 자기성찰이 정적관계로 나타난 것은 문화권에 따른 차이의 결과일 수도 있다. 즉, 집단주의 문화에 속하는 한국인들은 사회적 승인을 추구하기에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보다 사회비교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지만(Scollon & Wirtz, 2014; Suh, 2007; Wirtz & Scollon, 2012), 동시에 사회비교는 자기 평가의 기준이 되고(Festinger, 1954)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보편적이기에(Corcoran et al., 2011) 본 연구에서 사회비교 경향성이 자기성찰과 정적 관계로 나타난 것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자기성찰을 측정하고자 사용한 황주연(2011)의 척도는 자기탐색, 자기이해뿐만 아니라 타인 탐색과 타인이해 역시 자기성찰의 하위요인으로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비교를 하는 과정에서 타인을 탐색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과정이 포함될 수 있고 이는 자신에 대해 탐색하고, 자신의 이해하는 기준으로 삼아 자기

성찰로 연결되었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자기성찰은 물질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Donnelly 등 (2016)의 도피이론을 지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도피이론 5단계에서는 혐오스러운 자기 인식과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편협하고 경직되며 근시안적인 현재 중심적 사고를 하게 되고, 그에 따른 비합리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으로 부적응적인 소비와 물질을 추구하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를 반대로 표현한다면 자신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과 이해, 타인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과 이해로 구성된 높은 수준의 자기성찰은 비합리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억제하여 물질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맹목적으로 물질을 추구하는 경향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선행연구에서도 자신의 내면보다는 외부적 요인에 더 주의를 기울일수록 물질주의 가치를 추구하고, 자신의 내면에 더 주의를 기울일수록 물질주의 가치를 덜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Chatterjee, 1997)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비교 경향성과 물질주의 간의 관계에서 신경증과 자기성찰의 연속매개효과 역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다른 변인의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고 신경증과 자기성찰 간의 관계만을 살펴본 상관분석에서는 두 변인 간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조방정식 분석에서 사회비교 경향성과 물질주의 관계에서 두 변인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신경증은 자기성찰에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비교 경향성과 물질주의 관계의 영향력을 고려하면서 신경증과 자기성찰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는 두 변인의 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것처럼, 사회비교로

인한 부정적 감정은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아닌, 경직되고 근시안적인 사고로 이어지고, 이는 소비와 물질을 통해 즉각적인 만족감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이어질 수 있음(Donnelly et al., 2016; Smith & Greenberg, 1981)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부정적 감정의 경험은 자기성찰과 부적 상관관계에 있으며,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는 사람은 자기 내면에 주의를 기울여 자신의 생각,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숙고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김수경, 2022). 이처럼 다른 사람과 지속적으로 비교하면 할수록 부정적 감정을 경험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러한 부정적 감정은 불쾌한 자기 인식으로 이어져 스스로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자기성찰을 저해하고 물질적 가치를 몰두하고 집착하는 물질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들을 중심으로 이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연구는 한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사회비교 경향성과 물질주의 간의 관계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인의 명품 소비는 전 세계 2위로 2022년 GDP 소득 순위(16위)와 비교해봤을 때 명품 등에 대한 과시성 소비액이 크다. 그러나 그동안 사회비교 경향성과 물질주의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는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거나(Chatterjee et al., 2019; Kim et al., 2017) 국내 대학생(김경미, 2019; 이용건, 하창현, 2023)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20대부터 60대까지 고르게 포함하여 한국 성인의 다양한 연령층에서 사회비교 경향성과 물질주의 간에 유의한 관계가 나타남을 밝힘으로써 우리나라 사람들의 물질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데는 다

른 사람들과 자신을 자꾸 비교하는 사회비교 경향성이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이 연구에서는 Donnelly 등(2016)의 도피이론에 기반해 한국 성인들의 사회비교 경향성과 물질주의 간의 관계에 신경증과 자기성찰이 다중매개함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사회비교 경향성과 물질주의 간의 관계에 어떤 심리적 기제가 작동하는지를 체계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한국인들이 사회비교 경향성으로 인해 부정적 감정, 낮은 행복감을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구재선, 서은국, 2015; Scollon & Wirtz, 2014; Suh, 2007; Wirtz & Scollon, 2012). 그리고 타인과의 비교로 인해 경험하는 부정적 감정에서 탈피하기 위해 물질적 소유와 가치에 집착하거나(이용건, 하창현, 2023; Kasser et al., 2004; Zheng et al., 2018), 자신의 내면에 주의를 기울여 자신의 생각, 감정 등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숙고하기 어려워(김수경, 2022) 물질주의 가치를 더 추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atterjee, 1997). 그러나 이런 연구들은 Donnelly 등(2016)의 도피이론 일부 단계들을 확인하고 이를 지지하는 근거를 제시하였을 뿐 본 연구처럼 도피이론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즉, 본 연구에서는 사회비교 경향성이 신경증과 자기성찰을 부분매개로 하여 물질주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혀냄으로써 도피이론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가지는 한계도 분명 존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먼저, 이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변인들의 관계 역시 상관관계에 기초하고 있고, 실제 변인 간 영향력의 방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물질주의와 같은 외적 가치 추구를 하는 사람들이 사회비교를 더 많이 하기도 하고(최병섭, 이지연, 2019; Rahtz et al., 1988; Richins, et al., 1992), 사회비교로 인한 부정적 감정이 물질주의 추구 성향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관점도 있다(이용건, 하창현, 2023; Kasser et al., 2004). 이에 Zheng 등(2018)은 실험연구를 통해 사회비교로 인한 부정적 정서 경험을 극복하기 위해 물질주의 추구가 증가됨을 확인한 것처럼 후속연구에서는 실험연구 등을 통해 변인의 방향성을 조금 더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신경증의 핵심 특성인 정서적 불안정성, 강한 부정적 정서 경험에 초점을 두어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지만, 신경증이 본래 성격 5요인 중 하나임을 감안할 때 선행변인으로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살펴보지 않았지만, Donnelly 등(2016)의 도피이론에 따르면 물질주의 추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변인들(예: 자기비난)도 후속연구에 포함하여 살펴보는 것 역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목적으로 삼지 않았기에 연구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변인들과 연구변인들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않았지만 선행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회비교 경향성이 낮아지는 것(Callan et al., 2015)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연구의 연령대를 확장하여 다양한 연령층

에서 해당 변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거나 중단 연구를 활용하여 사회 비교 경향성과 물질주의 성향이 어느 시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지, 해당 변인들이 변화하는 시점은 언제인지를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구재선, 서은국 (2015). 왜 한국 대학생이 미국 대학생보다 불행한가? 상대적 외적 가치, 사회적 지원, 사회비교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9(4), 63-83.
- 국가통계포털 (2023). 주요지표(연간지표, 1953~2022), GDP(1980, 2022). 한국은행: 국민계정.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200Y001&checkFlag=N
- 김경미 (2019). 대학생의 사회비교 경향성이 물질주의를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9(12), 865-874.
- 김수경 (2022).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상관관계 연구: 자기성찰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13(4), 3021-3036.
- 김지현, 김복환, 하문선 (2011). 간편형 한국어 BFI(Big Five Inventory) 타당화 연구. *인간이해*, 32(1), 47-65.
- 김혜준 (2017). 온라인 토론학습에서 메타인지, 사회비교경향성, 팀에 대한 인식이 참여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문화체육관광부 (2022). 2022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보고서.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https://www.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w.jsp?pSeq=1889&pDataCD=0406000000&pType=
- 서예진, 안정민, 정태연 (2024). 한국인의 사회적 안녕감에 대한 질적 연구: 사회적 연결감, 사회정체성, 사회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30(4), 541-572.
- 시사뉴스매거진 (2023). 2022년 세계 명품 소비율 1위 한국인, 그 이유는? 종합시사매거진.
<http://www.sisanews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02>
- 양혜승 (2015). 상대적 박탈감은 언제 발생하는가?: 등장인물의 특성 및 수용자 개인의 속성이 상향비교 감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화보*, 29(6), 137-171.
- 유지혜, 설경옥 (2018). 한국판 물질주의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4(3), 385-410.
- 윤인영, 유나현 (2023). 사회비교 경향성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자기개념 명확성과 공적 자의식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5(1), 177-198.
- 이슬, 장승민 (2017). 정적 정서, 부적 정서, 자존감의 전반적 수준 및 불안정성과 우울 및 신경증 성향의 관계: 경험표집법과 다층모형을 이용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1(4), 183-202.
- 이용건, 하창현 (2023). 사회비교 경향성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문화적 자기로 조절된 물질주의 추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

- 학회지: 건강, 28(1), 63-82.
- 정주리 (2021). 한국판 제로섬 신념 척도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7(3), 285-303.
- 진성조, 이진실 (2023). 대학생의 사회비교 경향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14(2), 625-634.
- 최병섭, 이지연 (2019). 대학생의 물질주의, 외모주의, 사회비교, 외모만족도, 우울의 구조적 관계분석. 아시아교육연구, 20(4), 1039-1063.
- 황주연 (2011). 자기성찰 척도개발 및 자기관과 자기성찰, 안녕감 간의 경로모형 검증 [박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Ashton, M. C., & Lee, K. (2009). An investigation of personality types within the HEXACO personality framework. *Journal of Individual Differences, 30*(4), 181-187.
- Buunk, A. P., Groothof, H. A. K., & Siero, F. W. (2007). Social comparison and satisfaction with one's social lif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4*(2), 197-205.
- Callan, M. J., Kim, H., & Matthews, W. J. (2015). Age differences in social comparison tendency and personal relative depriv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87*, 196-199.
- Carver, C. S., & Scheier, M. F. (1981). *Attention and self-regulation: A control theory approach to human behavior*. Springer.
- Carver, C. S., & Scheier, M. F. (1982). Control theory: A useful conceptual framework for personality-social, clinical, and health psychology. *Psychological Bulletin, 92*(1), 111-135.
- Chang, L., & Arkin, R. M. (2002). Materialism as an attempt to cope with uncertainty. *Psychology and Marketing, 19*(5), 389-406.
- Chatterjee, A. (1997). *The role of materialism in the processing of persuasive messages: A combined functional and cognitive approach*.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emple University.
- Chatterjee, D., Kumar, M., & Dayma, K. K. (2019). Income security, social comparisons and materialism: Determinants of subjective financial well-being among Indian adults. *International Journal of Bank Marketing, 37*(4), 1041-1061.
- Corcoran, K., Crusius, J., & Mussweiler, T. (2011). Social comparison: Motives, standards, and mechanisms. In D. Chadee (Ed.), *Theories in social Psychology* (pp. 119-139). Wiley-Blackwell.
- Costa, P. T., & McCrae, R. R. (1992).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and its relevance to personality disorder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6*(4), 343-359.
- Diener, E., & Oishi, S. (2000). Money and happiness: Income and subjective well-being across nations. In E. Diener & E. M. Suh (Eds.),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pp. 185-218). MIT press.
- Diener, E., Suh, E. M., Kim-Prieto, C., Biswas-Diener, R., & Tay, L. S. (2010). *Unhappiness in South Korea: Why it is high and what might be done about it*. Seoul,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Dittmar, H. (2005). A new look at "compulsive buying:" Self-discrepancies and materialistic values as predictors of compulsive buying

- tendenc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4*(6), 832-859.
- Dittmar, H., Long, K., & Bond, R. (2007). When a better self is only a click away: Associations between materialistic values, emotional and identity related buying motives, and compulsive buying tendency onlin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6*(3), 334-361.
- Donnelly, G. E., Ksendzova, M., Howell, R. T., Vohs, K. D., & Baumeister, R. F. (2016). Buying to blunt negative feelings: Materialistic escape from the self.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0*(3), 272-316.
- Eastman, J. K., Fredenberger, B., Campbell, D., & Calvert, S. (1997).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us consumption and materialism: A cross-cultural comparison of Chinese, Mexican, and American students. *Journal of Marketing Theory and Practice, 5*(1), 52-66.
- Elphinstone, B., & Critchley, C. (2016). Does the way you think and look at the world contribute to being materialistic? Epistemic style, metaphysics, and their influence on materialism and wellbe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97*, 67-75.
- Festinger, L. A.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 *Human Relations, 7*(2), 117-140.
- Gibbons, F. X., & Buunk, B. P. (1999). Individual differences in social comparison: Development of a scale of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 129-142.
- Górnik-Durose, M. E., & Boroń, K. (2018). Not materialistic, just neurotic. The mediating effect of neuroticis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itudes to material assets and well-be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3*, 27-33.
- Górnik-Durose, M. E., & Pilch, I. (2016). The dual nature of materialism. How personality shapes materialistic value orientation.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57*, 102-116.
- Graham, C., Chattopadhyay, S., & Picon, M. (2010). The Easterlin and other paradoxes: Why both sides of the debate may be correct. In E. Diener, J. F. Helliwell, & D. Kahneman (Ed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ell-being* (pp. 247-288). Oxford University Press.
- Guðnadóttir, U., & Garðarsdóttir, R. B. (2014). The influence of materialism and ideal body internalization on body-dissatisfaction and body shaping behaviors of young men and women: Support for the consumer culture impact model.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55*, 151-159.
- Heaney, J., Goldsmith, R. E., & Jusoh, W. J. W. (2005). Status consumption among Malaysian consumers: Exploring its relationships with materialism and attention-to-social comparison-inform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Consumer Marketing, 17*(4), 83-98.
- Helliwell, J. F., Layard, R., Sachs, J. D., De Neve, J.-E., Aknin, L. B., & Wang, S. (Eds.). (2022). *World Happiness Report 2022*. New York: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 Izhar, L. I., & Babiker, A., Rizki, E. E., Lu, C., & Rahman, M. A. (2022). Emotion

- self-regulation in neurotic students: A pilot mindfulness-based intervention to assess its effectiveness through brain signal and behavioral data. *Sensor*, 22(7), 2703.
- John, O. P., & Srivastava, S. (1999). The Big Five trait taxonomy: History, measurement, and theoretical perspectives. In L. A. Pervin & O. P. John (Eds.),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pp. 102-138). Guilford.
- Kasser, T., Ryan, R. M., Couchman, C. E., & Sheldon, K. M. (2004). Materialistic values: Their causes and consequences. In T. Kasser & A. D. Kanner (Eds.), *Psychology and consumer culture: The struggle for a good life in a materialistic world* (pp. 11-28).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KBS World (2023). S. Korea Falls to 15th in Global GDP Ranking for 2022. https://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e&Seq_Code=179061
- Kim, H., Callan, M. J., Gheorghiu, A. I., & Matthews, W. J. (2017). Social comparison, personal relative deprivation, and materialism.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6(2), 373-392.
- Kostyuchenko, O. (2020). Recreational potential of metaphorization in mental self-regulation of the students. *Mental Health: Global Challenges Journal*, 3(2), 28-37.
- Krizan, Z., & Bushman, B. J. (2011). Better than my loved ones: Social comparison tendencies among narcissis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0(2), 212-216.
- Otero-López, J. M., & Villardefrancos, E. (2013). Five-Factor Model personality traits, materialism, and excessive buying: A mediational analysi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4(6), 767-772.
- Rahtz, D. R., Sirgy, M. J., & Meadow, H. L. (1988). Elderly life satisfaction and television viewership: An Exploratory Study.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5(1), 141-145.
- Reeves, R. A., Baker, G. A., & Truluck, C. S. (2012). Celebrity worship, materialism, compulsive buying, and the empty self. *Psychology and Marketing*, 29(9), 674-679.
- Richins, M. L. (2004). The material values scale: Measurement properties and development of a short form.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1(1), 209-219.
- Richins, M. L., & Dawson, S. (1990). Measuring material values: A preliminary report of scale development.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7(1), 169-175.
- Richins, M. L., & Dawson, S. (1992). A consumer values orientation for materialism and its measurement: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9(3), 303-316.
- Richins, M. L., McKeage, K. K., & Najjar, D. (1992). An Exploration of Materialism and Consumption-Related Affect.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9(1).
- Savchenko, O. (2019). Psychosemantic tools of self-assessing individual reflectivity. *East European Journal of Psycholinguistics*, 6(2), 98-106.
- Scollon, C. N., & Wirtz, D. (2014). Money, materialism, and the good life: Cultural perspective. In M. Tatzel (Ed.), *Consumption*

- and well-being in the material world* (pp. 109-125).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 Shafer, A. B. (2000). Mediation of the Big Five's effect on career decision making by life task dimensions and money attitudes by material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8*(1), 93-109.
- Sharpe, J., & Ramanaiah, N. V. (1999). Materialism and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Psychological Reports, 85*(1), 327-330.
- Smith, T. W., & Greenberg, J. (1981). Depression and self-focused attention. *Motivation and Emotion, 5*(4), 323-331.
- Suh, E. M. (2007). Downsides of an overly context-sensitive self: Implications from the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75*(6), 1321-1343.
- Suls, J., & Martin, R. (2005). The daily life of the garden-variety neurotic: Reactivity, stressor exposure, mood spillover, and maladaptive coping. *Journal of Personality, 73*(6), 1485-1510.
- Tesser, A., Millar, M., Moore, J. (1988). Some affective consequences of social comparison and reflection process: The plain and pleasure of being clos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1), 49-61.
- Trapnell, P. D., & Campbell, J. D. (1999). Private self-consciousness and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Distinguishing rumination from refle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2), 284-304.
- Velov, B., Gojković, V., & Đurić, V. (2014). Materialism, narcissism and the attitude towards conspicuous consumption. *Psihologija, 47*(1), 113-129.
- Wachtel, P. L., & Blatt, S. J. (1990). Perceptions of economic needs and of anticipated future income.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1*(3), 403-415.
- Watson, D. C. (2014). Materialism: Profiles of agreeableness and neurotic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6*, 197-200.
- Watson, D. C. (2015). Materialism and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A facet-level analysis. *North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17*(1), 133-150.
- Watson, D. C. (2021). Neuroticism versus emotionality as mediators of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materialism and well-being. *Heliyon, 7*(4), e06783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Sage.
- Wirtz, D., & Scollon, C. N. (2012). Culture, visual perspective, and the effect of material success on perceived life qualit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3*(3), 367-372.
- Zheng, X., Baskin, E., & Peng, S. (2018). The spillover effect of incidental social comparison on materialistic pursuits: The mediating role of envy.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52*(5/6), 1107-1127.

논문 투고일 : 2024. 12. 03
1 차 심사일 : 2024. 12. 30
게재 확정일 : 2025. 01. 31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mparison Tendency and Materialism with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Neuroticism and Self-reflection

Jin Sun

Ju-Ri Joeng

Department of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Based on Donnelly et al.'s (2016) Escape Theory,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neuroticism and self-refle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mparison tendency and materialism in a sample of Korean adults. A total of 445 participants (218 men and 227 women) were surveyed through an online platform, an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findings revealed that the social comparison tendency significantly influenced materialism, with the relationship being both individually and serially mediated by neuroticism and self-reflection. Specifically, the results suggest that a stronger tendency among Korean adults to engage in social comparisons is associated with heightened negative emotional states, which, in turn, reduces their likelihood of engaging in in-depth self-reflection and instead focus on materialistic values to emotionally escape from their negative emotional states.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addressing the interconnected mechanisms of social comparison tendency, neuroticism, and self-reflection to mitigate the adverse effects of excessive materialism.

Key words : social comparison tendency, materialism, neuroticism, self-reflection